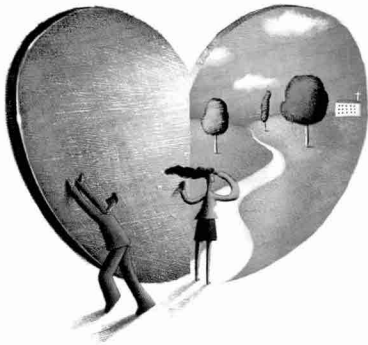


# 아름다운 사람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는 병원 앞 정원을 바라보고 있다면 모진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작은 돌 틈 사이로 이름 모를 들꽃 순이 돋아나게 하는 생명력을 보게 되고 오늘도 미약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생명의 고귀함과 하루의 삶에 감사드리고 보람 있게 어제보다는 좀 더 충실하게 살아보려고 다짐을 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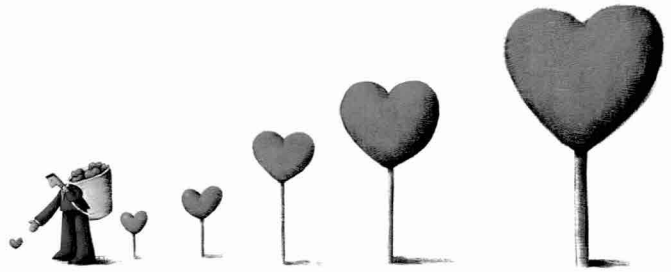
제가 성 이시돌 복지의원에 근무 한지도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뀐 세월이 어느덧 흘러가버렸습니다. 기존 한림에 있던 병원은 건물도 많이 노후 되었지만 환경과 여건이 여러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는지 우리의 인도자이신 주님께서 지금의 이시돌에 새로운 집을 신축 확장하여 앞에는 저 멀리 산방산과 바다가 보이고 그 사이사이에는 오름과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 넓은 초원위에 아늑한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분들을 정성껏 돌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창두(안드레아)  
성이시돌 복지의원 관리과장

특히 이사장님이신 피제 맥그린치(P.J McGlinchey) 신부님의 취지에 따라 말기암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아직은 유일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의원을 개원한지도 벌써 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부님께서 “말기암이란 병 자체가 가난이다”라고 우리 직원들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대



상자 한분 한분에게 최선을 다해 고통을 덜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쓰면서 숨어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봉사자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바쁜 시간과 일손들을 뒤로하고 이른 시간부터 청소, 목욕, 풀베기, 주방 돕기, 식사 보조, 환자들을 위한 기도 봉사 등 많은 분들께서 기쁘게 도와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실 봉사라는 말은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실천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곳은 교통도 불편하고 중산간이라서 습기가 많아 풀이 많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열흘에 한번 풀은 풀베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고마우신 봉사자분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지땀을 흘리시며 일하시는 모습하며 환자분들의 목욕날에는 면도를 맡김히 해주시고 무더운 공간 안에서 온갖 정성을 다해 깨끗이 닦아주시는 하나하나의 손길들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세심한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 집니다.

가끔씩 들녘에서 모진 바람과 눈보라에 시달리다 남은 익새풀들의 생명력을 바라 볼 때면 삶과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죽음을 거역하거나 죽

음에 맞 설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라 생각됩니다. 수녀님과 간호사님들은 말기암 환자분들이 지나온 각기 다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결국은 긍정적으로 삶을 잘 마무리 하고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위한 신체적, 영적, 사회적 면에 까지 도움이 되어주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창밖에는 스산한 바람과 함께 쌀쌀한 날씨이지만 언제나 환자분들의 안위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시는 수녀님, 주치의 선생님, 간호사님들, 주방에서든 어느 경우에도 없어서는 안 될 소금 같은 존재인 우리 자매님들, 후원회 사무실을 굳건히 지키며 내원객들을 반가이 맞으며 기쁨을 드리는 사무실 직원들 저희 모두는 고통 중에 있는 병상의 모든 환우들과 봉사자, 후원자, 모든 은인들을 위해 매일 아침, 저녁기도와 묵주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애써 주시는 자원봉사자님들, 작은 사랑마저도 함께 나누어 주시려는 후원자, 조용히 숨어서 도움주시는 많은 은인들이 계시기에 저희 병원은 훈훈하고 든든합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